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제24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염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4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제24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76일차

7월 3일
특별 법문

탄공스님

상주 도림사
인간극장 출연



● 95일차

7월 22일
특별 법문

선재스님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아침마당 출연



● 99일차

7월 26일
특별 법문

해농스님

전 해인사출원장
보살계수계법회



● 100일차

7월 27일
특별 법문

불심도문스님

조계종 원로
백고좌회향법문

일시: 2013년 4월 19일 ~ 7월 27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장소: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천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 법회 전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BTN TV - 10시 30분, 14시, 18시, 22시

- 자막 9시 36분, 11시 36분, 13시 30분, 13시 30분, 19시 45분

백고좌법회

방송광고 시간표

※ BBS라디오 - 08시 52분, 10시 53분, 16시 48분, 22시 3분

법사명단

회차	날짜	법사님	약력	회차	날짜	법사님	약력
74일차	7월 1일 ㉓	신중태화 점안법회		84일차	7월 11일 ㉓	수월스님	천불정사 주지 '물같이 바람같이' 음반출시
75일차	7월 2일 ㉔	연담스님	제주도 천제사 주지	85일차	7월 12일 ㉔	화랑스님	부산 동명불원 주지
76일차	7월 3일 ㉕	탄공스님 (비구니)	도림사 주지	86일차	7월 13일 ㉕	서광스님 (비구니)	운문승가대학 강사
77일차	7월 4일 ㉖	현각스님	강원도 성불원장	87일차	7월 14일 ㉖	원광스님	동화사 추무국장
78일차	7월 5일 ㉗	금해스님	황룡사 주지	90일차	7월 17일 ㉗	일장스님	유마승가대학 학장
79일차	7월 6일 ㉘	지안스님	통도사 반야암	91일차	7월 18일 ㉘	해월스님	해인승가대학 학장
80일차	7월 7일 ㉙	환해스님	문경 선재선제사 주지	93일차	7월 20일 ㉙	효범스님	해인사 학감
81일차	7월 8일 ㉚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94일차	7월 21일 ㉚	덕문스님	통도사 율원장
82일차	7월 9일 ㉛	각성스님	부산 화엄사 주지	95일차	7월 22일 ㉛	선재스님 (비구니)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83일차	7월 10일 ㉜	정관스님 (비구니)	홍련암	96일차	7월 23일 ㉜	지현스님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계사년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7 | Vol. 230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계사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오는 7월 4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8월 21일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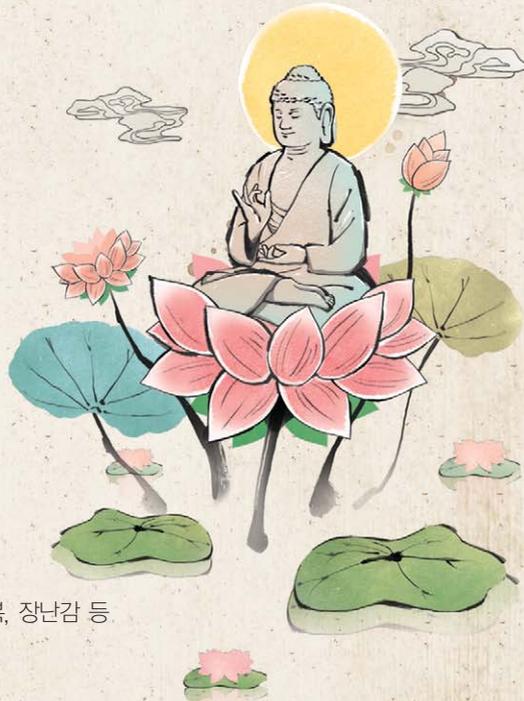
불자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 기 도** 입재 7월 4일(음. 5월 26일)
 초재 7월 10일(음. 6월 3일)
 이재 7월 17일(음. 6월 10일)
 삼재 7월 24일(음. 6월 17일)
 사재 7월 31일(음. 6월 24일)
 오재 8월 7일(음. 7월 1일)
 육재 8월 14일(음. 7월 8일)
 막재 8월 21일(음. 7월 15일)
 재일은 매주 수요일

-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겹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홑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 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 의 법암사 766-3747, 9088

- ※ 동참금은 영가 1위당 1만원입니다.
-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영혼결혼식 접수받습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Vol. 230호



- 04 깨침의 향기
부모님을 받드는 것은
만선(萬善)의 기본이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불국토 건설을 위하여(1)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종교가 아닌 학문일 뿐인 유학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지
중생의 가까운 친구 관음보살 모신 원통전 · 조명래
- 18 명찰순례
은진미륵으로 유명한 미륵불의 성지, 논산 관촉사
- 22 특집 | 신증탱화
수행정진과 불법수호의 상징 104위 신증탱화
- 24 법왕사소식
- 26 법왕사게시판
- 30 해오름소식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암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sa.or.kr | 발행일 불기 2557(서기 2013)년 07월 01일 발행 | 통권 230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강선옥, 고재일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암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받드는 것은 만선(萬善)의 기본이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당당합니다.

청나라 3대 황제 인 순치황제가 24세 때 중국 강서성에 있는 오대산사로 출가하면서 “百年三萬六千日(백년삼만육천일)이 不及僧家半日閒(불급승가반일한)이로구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백년 삼만육천날의 세속적인 삶이 부처님 도량에서 한나절 쉼만도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억울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순간을 살아도 깨달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무엇을 위해 왔습니까? 바로 보살행(菩薩行)을 위해 왔습니다.

보살행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恩惠)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갚자’ 는 이야기를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은 것은 우리 인간사(人間事)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갈등(葛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불국토(佛國土)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꼭 갚아야 하는 은혜에는 부모님 은혜, 이웃의 은혜, 국가에 대한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자연의 은혜 등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부모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은 것이 바로 보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님 은혜를 갚는 일에는 열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일체 중생 모두가 전전생에 부모 아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백골을 보고 절

을 하면서 “백골조차 부모형제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첫 번째가 바로 효(孝)입니다. 인욕경(忍辱經)에 보면 ‘선의 최상은 효도보다 큰 것이 없고, 악의 최상은 불효보다 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효는 만선(萬善)의 기본입니다. 동양에서 ‘효는 백행지원(百行之源)’이라고 합니다. 천지 신명을 다 섬겨도 부모님 잘 섬기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조물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최고의 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나는 효로서 부모님을 섬겼기에 지혜와 복이 높은 부처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오늘날 부모님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무량겁을 두고 부모님을 찬탄해야 한다며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공경(恭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첨(阿諛)하는 생각으로 섬기면 안됩니다.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효행이 아닙니다.

효행을 가정에, 이웃에 하면 경로(敬老)가 되고 국가에 하면 충성(忠誠)이 됩니다. 효심이 깊은 사람은 공정한 사람입니다. 단정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인격자입니다. 이 세상에 존경 받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즉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당당합니다.

부모님 은혜는 너무나 큼니다. 부모님 은혜는 너무나 지극한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인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의 10번째 구절인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에 보면 100살 먹은 노모가 임종을 맞으러 방으로 들어가면서 땀들 앞에서 뒤따라오는 80살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넘어질라, 조심하라’며 지극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어머니는 평화의



어머니는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자녀가 병이 나면

어머니도 병이 나고

자녀가 병 나으면

어머니도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나라이고 생명의 나라입니다. 자녀가 병이 나면 어머니도 병이 나고 자녀가 병 나으면 어머니도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자녀 깨나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신경림 시인은 어머니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고,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 내가 슬프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어머니를 아프게 하면 내가 아프니,
어머니 가슴 깊은 곳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나라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병 드시면 나라조차 병 드니
어머니가 곧 나라의 기둥이요 뿌리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활기 차시면 세상이 다 활기차고
어머니가 평화로우시면 세상이 다 아름다우니
곧 어머니가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내가 있고
나라와 세상의 중심에 어머니가 계시니.

성공한 사람에게는 천사와 같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율곡 이이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신사임당이라는 대단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신사임당은 율곡이라는 아들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천사 같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세연년(世世年年) 입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국토 건설을 위하여(1)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불교에서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스로 이익을 도모하고 이웃에게 이로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불자들은 사무량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위로는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 완성된 삶을 성취하고 아래로는 이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교화하여 사바세계를 각성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上求菩提 下化衆生]

이처럼 완전무결한 이상사회를 불교에서는 정토(淨土)라고 부릅니다.

정토란 '깨끗한 땅'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부처님이나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보살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중생들이 온갖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싸여 사는 곳을 예토(穢土)라고 합니다.

정토란 청정무구하고 안락한 곳으로 아미타부처님의 서방 극락정토나 약사여래부처



님의 유리광 세계, 미륵부처님의 용화세계 등이 있습니다.

정토신앙이 발생한 유래를 보면, 단 한번의 생애에서 부처가 되기 힘든 중생들을 위해 다음 생애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수기(授記)'를 받는 곳으로 극락정토를 설정하여 한 단계를 더 거치지만 반드시 성불하는 약속을 받는 신앙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정토의 본질적인 의미를 헤아려 본다면 그 참뜻은 아무래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 땅을 정토, 혹은 불국토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인정받고 불살생의 계율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모든 이들이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이 현세에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토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국정토를 건설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이 있는데 이 덕목을 닦지 않고서는 불국정토 건설 염원은 한낱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연기의 법칙을 철저히 깨닫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주만물의 원리를 연기설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세상 만물은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함께 존속해 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혼자 존립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운 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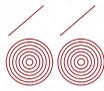
침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여 수행도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웃에도 그 이로움을 베푸는 것 즉, 자리아타(自利利他)에 의해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자(慈)·비(悲)·희(喜)·사(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베푸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첫 덕목입니다.

사무량심이란 불자들이 이웃에 대해 지녀야 할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의 자무량심이란 모든 이에게 한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비무량심은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여기는 것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애처롭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희무량심이란 이웃의 기쁜 일을 사심 없이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사무량심이란 어디에도 얽매는 바 없고 집착하는 바 없는 공정한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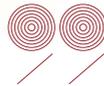
흔히 불교는 자비(慈悲)의 가르침으로서 부처님이 설하신 바도 자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자비란 바로 사무량심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자무량심과 비무량심을 합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자비의 참 뜻인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 학문일 뿐인 유학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우리나라 사대부는 사사로운 당쟁과 사권(私權)이 악폐를 부식하였으니 실로 망국의 원인이 되었으며, 평민사회도 이러한 습성에 물들어 나누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일이 있어 또한 멸종(滅種)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통사>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당시의 죄없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 시대는 쇠잔한 마을의 가난한 민호에서 어린애를 낳으면 첫 울음소리가 나기 바쁘게, 병적에 올리라는 붉은 종이가 도착한다. 심한 경우에는 뱃속에 든 아이를 두고 이름을 짓고, 혹은 딸을 아들로 바꿔 놓으며, 더욱 심한 경우에는 강아지 이름을 군안(軍案)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 법에는 어린 아이를 군역에 충당하면 수령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의 백성들은 실정이 몸만 있으면 비록 생후 3일 안에 병적에 올려도 감히 원망하지 못한다. 법에는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치 못하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백성의 실정은 모두 백골징포를 오히려 원하고 있다.

무슨 까닭인가? 아버가 죽고 아들이 군역을 대신하려면 온갖 이름을 빌린 부채를 납포(納布)함이 종래와 같은데, 따로 거둬 가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백골징포가 백성들

에게 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은 반드시 다 죽어야 할 것이다.”

18세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탁상공론만을 일삼은 유학은 치국이념으로 더 이상 냉엄한 현실에 대처할 수 없었다. 신분계급 사회로 인한 인간 천시와 학대로 한 맺힌 민심은 때가 되자 이곳저곳에서 붓물처럼 터지면서 민란이 일어났다. 혼돈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르는 한반도를 둘러싼 서구 열강들의 침탈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세도정치와 매관매직, 정변으로 왕권은 허수아비가 되어 망국의 길로 치달았다.

● ●
격동의 근대사는 조선왕조의 무능 탓
반면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을 계기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비확장에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정한론(征韓論)’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조선을 거의 송두리째 거저 넘겨받듯이 강점하게 되었다. 이처럼 외세에게 국치(國恥)를 당하며 치욕스럽고 무기력하게 멸망한 비운의 왕조가 이 땅에서 ‘조선’ 말고 또 있었는가?
분명한 사실은 조선왕조의 종말은 국운이 다하여 같은 우리 민족에게 국권을 넘겨준 삼한(三韓)이나 그 뒤를 이은 고려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더구나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에게 약

소국의 예로써, 왕세자 책봉을 알려야 했고, 공물(貢物)을 바치며, 내정 간섭을 받은 정도의 관계가 아닌, 일제의 날강도 같은 만행이 저지른 인명살상과 착취, 수탈 및 모진 억압으로 암울했던 식민지배 36년, 그 후유증은 장차 있을 우리 민족이 알아야 할 어두운 조짐의 그림자로 짙게 드리워진다.

힘난했던 격동의 근대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조선왕조가 그토록 무능하고 그처럼 부정부패하지 않았다면, 고질적인 내분으로 자멸하듯 왜인에게 국권을 넘긴 일제 강점기를 맞지 않았을 테고, 따라서 외세의 도움으로 독립한 조선은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된 미·소의 신탁통치는 물론, 원치 않은 미군정 실시도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허구한 사상이념에 빠져 극렬하게 대립하며 싸우던 좌·우익간의 국론분열과 강대국의 농간에 허리 잘린 국토 분단이며, 민족사 최대 비극인 6·25전쟁마저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그렇다고 ‘역사에서 가정이란 무의미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조선왕조 후기로부터 빌미된,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배로 인한, 아물지 않은 생채기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안요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명분상 경험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친일청산을 덮어두었다. 이에 일제에 빌붙어 동족을 괴롭히던 고등계 순사나 관리들은 거

의 그대로 다시 채용되었다. 이들이 다시 득세하면서, 국기(國紀)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도(正道)를 위한 대의명분 차원에서 선결 과제이기도 한 '친일청산'은 여태껏 미완으로 남아있다.

이승만의 지독한 집권욕은 끝내 젊은 학도들의 의로운 피로 얼룩지면서 끝이 났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오만이 빛은 지도자의 부정독재는 결과적으로 5·16 군사 쿠데타를 불렀고, 헌정질서를 짓밟으며, 연이은 군사독재정권 30년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 되었다.

● ●
언행불일치가 획일적 이념 양산

1945년 해방 후 정부수립 후에도 사회혼란과 극심한 무질서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이는 거슬러 올라가, 서로를 원망하고 탓만 하는 시기와 분열, 중상모략으로 지치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조선왕조가 허무하게 나라를 뺏기면서, 불신하는 대립구조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패이게 한 꼴이 되었다.

이는 19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은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예외 없이 그로 인하여 내전을 비롯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듯이, 우리 또한 일제가 물러갔지만, 외세의 강도 정치가 저지른 죽임과 착취와 수탈의 행적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뿌려 심어놓은 그릇된 사관(史觀)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하고도 빛나간 삶의 자세가 여전히 통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의 근원은 정신 놓고 흐리멍덩하게 살면서 탐욕과 거짓으로 백성을 속이고, 국권을 외세에 넘긴 조선왕조의 오랜 폐단과 폐습에서 찾아야 한다.

생각할수록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오백년간 서민들에게 군림하며, 선비다 양반이다 하며 세도를 누리면서 탐욕스럽게 사리사욕만 채운 탓에, 나라 망친 짓지 못할 과오를 저지른 유가(儒家)인들이 언제 한번이라도 온몸으로 절절히 참회하는 불교도처럼 지난 잘못을 두고 머리라도 숙여 뉘우친 적이 있었는가?

생각의 지배를 받는 동물로서 우선 바른 것을 가치로 삼아 기본적인 윤리·도덕 또한 설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정사(正思)' 개념의 바른 생각에서 벗어난 허울뿐인



학문의 이름으로 개개인의 그릇된 하나의 사고와 굳어진 방식은 종내 큰 화(禍)를 부르며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정도(正道)'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정사(正思)'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행(先行)조건으로서 말과 일치하지 않은 위선적인 행실로 스스로 속이고 '내 편이 아니면, 곧 적으로 간주'하여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은 극단적 흑백논리와 획일적 이념을 추종하는 학문과 그것을 따르는 왕조가 잘 되고 번성하며, 끝이 좋은 예는 동서고금을 내리두고 보더라도 없는 일이다.

공자는 『논어』 위령공(衛靈公) 편에서 말하길,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됨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인배의 짓"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민족의 얼을 일깨운 사학자로 상해 임정 2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애국사상을 고취시킨 박은식(朴殷植, 1859-1925) 선생은 『한국통사(韓國痛史)』에서 몹시 안타까워하길,

"... 다만 내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나라 당쟁(黨爭)의 역사이다.

우리나라는 소위 동인·서인, 남인·북인이라는 사색당파가 있어 정권을 쟁탈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이를 불세(不世)의 공으로 생각하였다.

폭탄이 터지듯이 뜨겁고 맹렬한 불꽃 같이 치열하여 진신(搢紳)이 어육(魚肉)이 되고 국

가의 기틀이 흔들린 지 지금까지 3백년에 이르렀으나 그칠 줄을 몰랐다.

이런 까닭으로 사대부가 능히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 피를 흘린단든지, 세상에 빛을 발휘한다든지, 혹은 생민에게 복리를 주려는 것은 거의 없고, 한갓 당을 위해 피를 흘리고, 집안의 가보(家譜)에나 이름을 올리며, 자손들에게 보복이나 끼치는 것이 매우 많았다. 당을 위해 죽는 혈성(血誠)을 나라를 위해 죽는 것으로 옳긴다면 우리나라도 천하에 웅비할 수 있으면만 어찌해서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많은 피를 사사로운 권력이나 사사로운 이익의 싸움에 던지고 국가와 민족에게 큰 관계가 되는 대사업에는 던지지 않았던가."

● ●
유학은 주의·주장만 난무

유감스럽게도 유가에는, 저지른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어떤 참회의식조차 없으며, 되돌아 보아 허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뼈 아픈 자성(自省) 없이 파벌에 따른 주의·주장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거짓된 말과 행실로 평생을 살며 자기도취의 독선에 빠져 자만과 오만으로 침 없는 백성들에게 사무치도록 응어리진 원한을 맺히도록 한 유학은, 다만 인간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윤리며 도덕을 가르치는 학문으로서의 유학이라 불릴 뿐, 이 '유학'을 두고서 종교 차원으로 격상시켜 '유교'라 함은 당치도 않을 왜곡된 일이다.



중생의 가까운 친구 관음보살 모신 원통전

▲ 파계사 원통전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관세음보살과 원통전

관세음보살을 주존으로 모신 전각이 원통전(圓通展) 또는 관음전(觀音殿)이다. 사찰의 중심 전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격을 높여 원통보전(圓通寶殿)이라 한다.

원통전에서 '원통(圓通)'은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서 빠르게 구구구난(救苦救難)해 준다는 능엄경의 핵심인 '이근원통(耳根圓通)'에서 비롯되었다. 이근원통이란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는 것이다. 또 능엄경 대세지보살염불원통장(大勢至菩薩念佛圓通章)에서는 문수보살이 염불수행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염불이 이근원통 수행에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千手千眼)'으로 상징된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모든 곳을 보면서 중생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구제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투어서 대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보문시현(普門示現)'이라 한다.

관세음보살이 나투시는 여러 모습은 경전에 따라 차이가 있어 관음경에는 '삼십삼응신'이라 하고, 능엄경에는 '삼십이응신'이라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관세음보살이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여 중생들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구원을 해주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육관음(六觀音)이라 한다. 육관음은 성관음(聖觀音), 천수관음(千手觀音), 마두관음(馬頭觀音),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준제관음(准提觀音),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으로 각각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나투어서 육도(六道)의 중생을 교화한다.

지장보살과 명부전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부터 미륵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보살이다. 흔히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

통 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로 이해하고 있으나 지장보살이 맡고 있는 일 가운데 지옥중생 제도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 생긴 오해이다.

지장보살이 행하는 지옥중생 제도로 인하여 지장전(地藏殿)과 명부전(冥府殿)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명부(冥府)'란 염마왕(閻魔王), 즉 염라대왕(閻羅大王)이 다스리는 유명계로서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모시고 죽은 이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전각이며,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신 곳이어서 지장전이라고도 한다. 지옥의 심판관 시왕을 모시 곳이므로 시왕전(十王殿) 또는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전각이라 하여 쌍세계(雙世界)이라고도 한다.

지장보살에 관한 경전으로는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과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이 있으며 이들 경전에 의하면, 지장보살은 이미 여래의 경지를 증득하였고 무생법인(無生法印)을 얻었다고 하며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세계의 부처의 국토에 머물고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장보살은 자신의 성불을 포기한 보살이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 특히 악도에 떨어진 중생과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 모두가 성불하기 전에는 자신도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모든 중생들의 성불



▲ 고운사 명부전



▲ 불영사 명부전

을 기약할 수 없으니 사실상 지장보살은 성불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연유에서 지장보살을 '대원본존(大願本尊)'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정해진 업(業)은 면하기 어렵다[定業難免]'는 업설(業說)은 지장보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의 업보(業報)는 전생의 업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윤회의 괴로움을 피할 수 없지만 지장보살에게 귀의하면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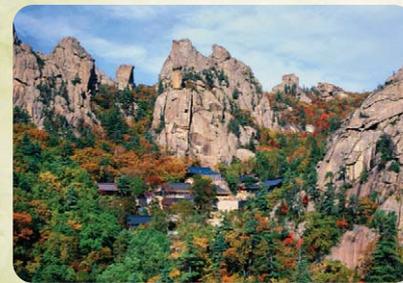
지옥에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중생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지옥, 그 자체

를 부수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지장보살 신앙이 널리 신봉되었다. 즉 관세음보살은 현실의 고통을 없애 주는 보살이지만, 죽은 뒤의 육도윤회나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구제해 주는 데는 지장보살을 으뜸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장보살은 육도윤회를 심판하는 명부의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명부전의 주존으로 모시게 되었다.

지장보살 신앙이 널리 신봉됨에 따라 예로부터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는 갖은 음식과 과일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우란분재(盂蘭盆齋)를 봉행한다.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8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합니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량으로 유명한데 불심 깊은 불자들은 생전에 꼭 한번 참배하고 싶어 하는 도량입니다.

- 일 시 | 8월 2일(금) ~ 4일(일)
- 코 스 | 백담사 - 오세암 - 봉정암(1박) - 수렴동 계곡 - 백담사
- 회 비 | 12만원
- 출 발 | 8월 2일(금) 밤 11시 30분 법왕사 주차장



은진미륵으로 유명한 미륵불의 성지, 논산 관촉사

충남 논산 반야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관촉사는 미륵부처님의 성지이다.

관촉사는 빛나는 촛불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968년(광종 19) 혜명(慧明)대사가 조성한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백호 미간의 수정에서 찬란한 빛이 발산하여 중국의 지안(智眼)스님이 그 빛을 좇아 이곳에서 와 배례한 뒤, 그 빛이 마치 촛불과 같이 빛난다고 하여 절 이름을 관촉사라 했다고 한다.

8각형이다. 2층의 보관에 관의 네 귀에 청동제 풍경이 있다. 다른 불상과 달리, 이마가 좁고 턱이 넓은 사다리꼴 모양의 얼굴과 코, 입, 귀 등이 얼굴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못 생긴 불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고려 광종 19년(968) 봄, 사제촌에 사는 한 부인이 어느 날 반야산에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어디서인지 아이 우는 소리가 나서 가 보았더니 아이는 없고 큰 바위가 땅속으로부터 솟아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정에서는 이 바위로 불상을 조성할 것을 결정하고 혜명대사에게 그 일을 맡겼다. 혜명대사는 1백여명의 장인들과 38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이 불상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상이 너무 거대하여 세우지 못하고 걱정하던 어느 날, 사제촌에서 동자 두 명이 삼등분된 진흙 불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먼저 땅을 평평하게 하여 그 본을 세운 뒤 모래를 경사지게 쌓아 그 중간과 윗부분을 세운 다음 모래를 파내어 불상을 세웠다.

혜명은 돌아와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마침내 불상을 세웠다. 사제촌의 두 동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현이라고 한다.

불상이 세워지자 하늘에서는 비를 내려 불상의 몸을 씻어주었고, 서기가 21일 동안 서렸으며, 두 눈썹 사이의 옥호(玉毫)에서 발한 빛이 사방을 비추었다고 한다. 국가가 태평하면 은진미륵의 몸이 빛나고 서기가 허공에

관촉사의 자랑거리는 단연 석조미륵보살입상이다. 보물 제218호인 석조미륵보살입상(石造彌勒菩薩立像)은 흔히 은진미륵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예전에 관촉사가 있는 지명이 은진이어서 은진미륵이 되었다고 한다.

불상의 높이가 18m인 은진미륵은 천연의 화강석 암반 위에 허리 아랫부분과 상체, 그리고 머리부분이 각각 하나의 돌로 이들 세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머리에는 구름무늬 같은 머리카락이 조각되어 있고 관은



- ① 대광명전
- ② 해탈문
- ③ 윤장대

서리며 난이 있게 되면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손에 쥔 꽃이 색을 잃었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관촉사의 미륵전에는 불상이 없다. 대신 부처님이 있어야 할 전면을 통유리로 만들어, 그 유리를 통해 은진미륵불을 볼 수 있게 해두었다.

법당은 고려 우왕 12년(1386) 때 처음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후 1581년(선조 14)과 1674년(현종 15)에 중수했으며 1735년(영조 11)에 다시 중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촉사 경내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석문을 하나 통과해야 한다.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지나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계단 맨 위에 암반이 하나 있다. 그 위에는 기둥의 한쪽에

는 관촉사라 써여져 있고 다른 쪽에는 해탈문(解脫門)이라 적혀 있는 석문이 하나 있다. 이는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문으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되어 있다.

구전에 의하면 미륵보살입상을 세운 후 참배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 주위에 성벽을 쌓고 동·서·남·북 4곳에 이러한 석문을 두었다고 한다. 그중 동쪽에 세운 이 문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해탈문의 입구는 작고 낮아 고개를 숙인 채 통과해야 한다. 아마 이는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을 만나라는 뜻일 것이다. 해탈문을 지나면 윤장대가 나온다. 경전을 넣어둔 윤장대를 한 바퀴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긴다고 한다.

은진미륵과 함께 고려 광종 19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4각의 석등은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火舍石)이 중심이 되어, 아래에는 3단의 받침돌을 쌓고, 위로는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었다. 이 석등은 보물 제232호로 남한에서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다음으로 크다. 이 석등에 있는 공간 사이로 보면 은진미륵의 다양한 얼굴 표정을 만날 수 있다.

석등에서 동쪽으로 약 10m 떨어져 있는 배례석은 절을 찾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합장하고 예를 갖추는 장소로 사용된다.

3개의 연꽃무늬 조각은 오랜 세월이 흘렀



음에도 선명하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걸작이다.

뭉니뭉니 해도 관촉사를 대표하는 것은 은진미륵이다. 은진미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생긴 불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크기에서 나오는 강인함과 서민적인 표정에서 나오는 포근함은 중생을 생각하는 은진미륵의 가피가 넘쳐나는 것 같다.

관촉사 가는 길

승용차 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지선을 따라 가다 논산C에서 내려 건양대학교 방향으로 가면 됨

대중교통 건양대, 가야곡방면 버스이용(10분 소요)

수행정진과 불법수호의 상징 104위 신중탱화

법왕사는 6월 23일 만불전에 104위 신중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신중탱화(神衆幀畵)는 불교의 호법신들을 묘사한 불화로써 법당의 좌우측 벽에 주로 봉안된다.

사찰의 전각에는 부처님이나 보살을 그린 후불탱화 이외에도 신중탱화나 지장탱화, 삼장탱화, 감로탱화 등이 함께 봉안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중탱화는 신장탱화라고도 하는데, 신중탱화에 나타나는 신중들의 형상은 다양하다.

안으로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행정진하고 밖으로는 불법 수호를 담당하는 신중들은 주로 무사나 역사 등의 모습이 많은데 얼굴은 위엄이 차 있고 몸짓 또한 대단히 장엄하다. 법당에 신중을 모신 단을 신중단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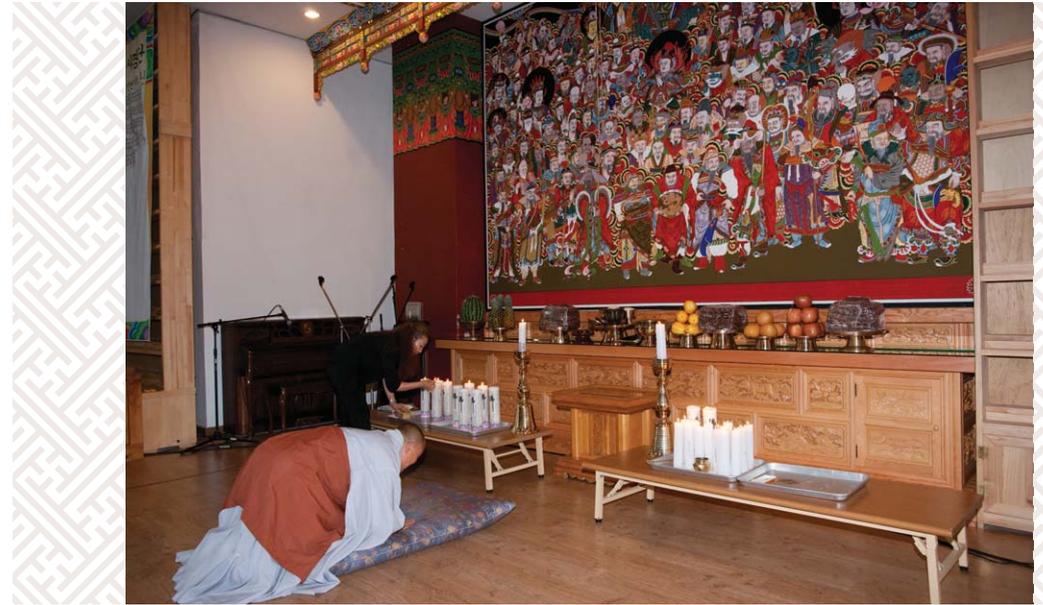
신중탱화에 나타나는 존상의 숫자는 1위, 3위, 39위에서 많게는 104위까지 있다. 1위만 모실 경우에는 동진보살만을 그리고, 3위를 모실 경우에는 동진보살과 호계대신과 복덕대신을 그리기도 하고, 도량신과 가람신, 또는 산신과 용왕을 그리기도 한다. 39위 신

중은 대승경전에 나타나 있는 인도의 토속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중탱화는 화엄신중신앙에 바탕을 둔 것으로 39위 신중탱화가 그 원형을 이룬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수행을 하신 지 6년쯤 되는 음력 12월 8일, 마갈 타국의 법보리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후 21일간에 걸쳐 '화엄경'을 설하셨다. 이에 수많은 보살과 대중들이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다.

이들 중에는 금강신(金剛神), 도량신(道場神), 주지신(地主神), 주산신(主山神) 등 39위의 신중이 계셨는데 이들 신중은 화엄법회에 동참하여 불법에 귀의함은 물론 불법수호를 서원했다. 이들 신중이 나중에 '화엄신장', '화엄성중', '호법신신', '옹호성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차츰 불교가 민간신앙과 강하게 결합되면서 39위 신중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신들을 수용하여 104위 신중탱화를 이루게 되었다.



104위 신중탱화는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나뉜다. 상단에는 대예적금강 및 8대 금강, 4대 보살, 10대 광명 등이 모여져 있다. 중단에는 제석천왕 및 사대천왕, 대승제천, 공덕천, 위태천신 등의 제천신 및 용왕, 모신, 수신 등 칠원성군 및 삼배후성 아수라 등 팔부신중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단에는 호계신, 복덕신, 토지신, 도량신, 가람신, 산신, 강신, 몽신, 목신, 축신, 방위신 등이 자리해 불법을 수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신중탱화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대예적금강신을 주축으로 한 탱화이다. 중심에는 금강신이 차지하고 좌측에 제석천, 우측에 대범천, 아래에는 동진보살

이 있다. 주위에는 성군이나 명왕, 천녀 등이 도열해 있다.

둘째는 제석천과 대범천,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한 탱화이다. 때로는 제석과 대범천을 중심으로 한 천신을 위쪽에,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한 금강신장을 아래쪽에 배열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제석천, 대범천을 중심으로 한 탱화이다. 이 탱화는 제석탱화라고도 한다. 이 탱화는 모든 신중을 제석의 주위에 배치한다.

넷째는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한 탱화이다. 이 탱화는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상하에 팔부신장과 십이지신장 등 신장만을 묘사하게 되므로 신장탱화라고 한다.

법왕사 소식

만불전 104위 신중탱화 봉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6월 23일 만불전에서 104위 신중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3백여 불자들이 탱화 봉안에 동참하여 여법하게 봉안법회에 동참했습니다. 신중탱화는 특히 자녀들이 학업성취에 큰 공덕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학부모 불자들이 많은 동참을 했습니다. 약 5백명의 제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데 현재 3백50여 제자가 동참하였고 1백50여 제자의 동참이 더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탱화 점안법회는 오는 7월 1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개최



법왕사에서는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7월 27일 전야(26일) 오후 7시에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불자가수 김태곤, 80년대 가수로 인기를 모았던 비구니 보현스님과 뮤지컬 배우 정민경,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 정무시 선생, 박준용군이 출연하며 전 푸른방송 아나운서 신금산 보살이 사회를 맡게 됩니다.

백고좌법회 회향 일만등 공양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7월 27일 전야(26일) 오후 7시에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와 더불어 일만등 공양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100일 동안 쉼 없이 열여온 법회를 마치면서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일만개의 연등으로 밝혀 공양하는 뜻깊은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법왕사 오기 더 쉬워져



지난 6월 15일, 상인동~범물간 앞산터널이 개통되어 범물동이나 상인동에서도 법왕사에 10분 이내에 올 수 있어 불자들의 참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물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약 7km로 7분이 소요되며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약 11km에 11분이 소요됩니다. 요금은 범물 - 파동 구간은 500원, 상인 - 파동 구간은 900원입니다.

법왕불교대학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중급, 고급반을 개설합니다.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여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최근 돌아온 영일스님께서 '빨리 불교원전' 강좌를 3개월 과정으로 하며, 고급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활안 큰스님께서 5개월 과정으로 금강경 강의를 합니다.

법왕사 소식

2013년 1학기 불교대학 기초교리반 개강

법왕사는 4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 과정의 불교대학 기초교리반을 개강합니다. 주지 실상스님 직강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불자들이 불교의 기초교리와 예절, 상식 등에 대해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이며 수강료는 3개월 10만원입니다.

매월 양력 초하루 법회 봉행

법왕사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를 봉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중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불공을 올리고 법회를 해왔는데 현대사회에 맞게 양력 초하루에도 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생활역학과 풍수역학' 특별강좌 개최



법왕사에서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풍수 및 역학 전문가 흥순영 선생을 강사로 초빙, '생활역학과 풍수' 특별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전통적인 음택과 양기 풍수 이론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풍수, 생활풍수는 물론, 사주, 명리, 작명 등 실용적인 풍수와 역학의 이론과 적용법을 강의합니다.

계사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49일 기도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백중(음력 7월 15일)을 앞두고 오는 7월 4일부터 49일간 백중맞이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로 효심이 남달리 컸던 목련존자께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여 생간 명절로 예부터 조상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재일은 매주 수요일이며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공당 정무 대중사 각령단 벽화 조성

법왕사에서는 본당에 설치한 원공당 정무 대중사 각령단 뒤편 벽화조성 불사를 봉행합니다. 이번 불사는 각령단을 여법하게 장엄하는 것으로 후불 탱화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불제자 여러분들은 1인 5만원의 동참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동참한 제자들은 벽화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보존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



법왕사에서는 법우님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위해 합창, 다도, 생활역학과 풍수, 서각,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최중수 현동열 우성국 이희돈 정영기
장병철 송용훈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
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초하루기도 도움 주신 분

◎ 떡공양
이주애 15만원 부창떡집 직접
김상수 2만원 김주현 3만원

◎ 공양미
김순자 5만원 유용재 5만원

◎ 보시
이태화 5만원

관음재일 도움 주신 분

◎ 대중공양
서영숙 5만원

◎ 떡공양
김상수 3만원 정영미 직접

◎ 공양미
김주현 5만원

법사비 도움 주신 분

우성국, 권오남 100만원 양혜진 50만원
일선스님 40만원 부창떡집 50만원

축하합니다

- ◎ 배해동 법우님의 차녀 수진 양과 정일영 법우님
의 장남 우득 군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 이세정 법우님의 장녀 정영미 양과 김병조 법우
님의 장남 성우 군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100일기도 회향

심규암 떡공양 5도

산송주상 영가 49재 회향보시

서울 인의한의원 타월 200장, 소화제 200통

감사드립니다

김영택 작품기증 : 달마대사수묵화(80호)
색종이보시 : 이동영, 김청애, 김운자
선풍기 보시 : 조철제

법보시

덕산스님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는다' 51권

대중공양

조성민 떡 1도

정무스님 생신 떡공양

권혁일 6만원

돼지저금통 회향

익 명 신지원 김정남 흥공덕심 신재성

생일

백법성행(5. 12) 안준열(6. 17) : 떡공양 3만원
문수명(5. 7) 1만원 허현도 3만원

원불 봉안하신 분

채제령(지장보살) 채부영(지장보살)
김수권(지장보살) 산송주상(지장보살)
김규민(문수보살) 산양준원(석가모니불)
김수연(관세음보살) 김정환(보현보살)
산이수익(지장보살 中佛) 최지민(문수보살)
최연제(보현보살) 조동선(문수보살)

차량무사고

박태조 17무6940 3만원
김대영 50고 2237 5만원

사보 도움 주신 분

이형욱 300부 권명자 50부

서울 참수행정각사 신도일동 1000부
현대불교 문인협회 대구경북지회 100부
덕양선원 법상스님 250부

왕생극락 하옵소서

- ◆ 박종욱 법우님의 산임부후인 밀양 박소 장규 영가
님의 기제사가 6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박영민 법우님의 산임부후인 밀양 박소 삼봉 영가
님의 기제사가 6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광병한 법우님의 산임부후인 현풍 광소 태영 영가
님의 기제사가 6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강용규 법우님의 산임부후인 진주 강소 유수 영가
님의 기제사가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이창수 법우님의 산형님후인 성산 이소 장수 영가
님의 기제사가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안미옥 법우님의 산자모유인 성주 도씨 부연 영가
님의 기제사가 6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정운오 법우님의 산임부후인 나주 정소 해길 영가
님의 기제사가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최재훈 법우님의 산조모유인 달성 서씨 갑임 영가
님의 기제사가 6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임찬기 법우님의 산임부후인 나주 임소 판규 영가
님의 초재가 6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박시병 법우님의 산임부후인 밀양 박소 행남 영가
님의 초재가 6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송용훈 법우님의 산임부후인 은진 송소 주상 영가
님의 막재가 6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산임부 밀양후인 박소 원선 영가
산자모 경주유인 이씨 두근 영가
산임부 나주후인 임소 판규 영가
산자모 경주유인 김씨 정심 영가
산동생 남원후인 양소 준원 영가
산조부 문화후인 류소 명덕 영가
산조모 성주유인 여씨 순이 영가
산임부 안동후인 김소 해석 영가
산임부 김해후인 김소 영일 영가
산자모 김해유인 김씨 금례 영가

산동생 김해후인 김소 현수 영가
산임부 밀양후인 박소 행남 영가
산임부 김녕후인 김소 덕면 영가
산자모 경주유인 이씨 일연 영가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백고좌 일만등 다신 분

김종황 김민정 김근태 김영경 남해런
김은주 신경인 신아림 신창연 신정환
김지연 권영자 김중구 김보일 양지영
양혜영 양봉훈 양문갑 박태숙 진영덕
진성렬 이우영 이상훈 정의현 정의운
박성주 김기덕 김팔경 정승우 정민경
정민우 박재희 정현균 손대천 손혁준
신임선 김수연 김정호 이지송 김상수
권혁일 이점례 권지현 권도형 대원화
이희동 조현갑 윤락희 조정훈 조은주
조복래 김분용 조민규 김성우 정영미
정시영 김예슬 정국영 조미숙 이세정
정 돈 김은진 김은진 정성훈 정희정
정선규 정재왕 정성원 정성욱 정성인
강희복 김은정 강선규 강효강 강동규
정명기 강민정 이상욱 이연주 이상호
이동환 조철제 박정숙 조성민 단정점연
산이태호 산한을용 백대행심 여보리자

신중탱화 동참 하신 분

◎ 실판제자
이정상 전옥남 이욱진 이도윤 이나경
이승엽 이승아 조준승 김승덕 조병채
김숙희 조희진 조민섭 조병완 이연령
조동균 조수민 박근범 김현향 박준표
박소민 박소영 송용훈 송유진 송현지
권혁태 최창기 권대현 최우진 권민서
최수빈 이희숙 정연수 조명희 정윤재
정미화 권오성 정보석 신장희 회원 일동

◎ 일반제자
박해진 이원석 신명균 신호정 강지원
조현봉 김수연 남학형 이준호 김순자

사공순옥	손홍락	윤가영	사공관	박은정
신지원	박건탁	김정호	윤정민	우정현
이소민	백월순	김상철	구실상화	서정익
강동한	이재학	김정호	정민경	이상열
김성훈	김상희	김점순	최남윤	김순자
이상훈	이준호	박건민	한은숙	이재원
우연정	금동인	박종성	최재훈	신승훈
임인환	백상현	신성호	최현무	권재현
이정애	이태화	오창혁	손동영	김희동
이준민	유춘발	신동일	김재윤	안선희
황경희	권정희	나은정	최윤재	문서은
김기봉	백승열	신세호	최지윤	권보형
이현우	이준목	신정순	손동웅	정성향
김재경	최운순	이명순	김희준	김경란
장동탁	김태운	김호진	이은미	신미경
박말순	백인혁	김지혜	마재영	양영갑
이성은	김의환	오재대	김태관	김태연
하윤혜	유규하	유용재	신진아	김희재
김정석	권기욱	정근순	박연정	신천시
신유림	장영원	백인수	한재웅	이현주
권기정	이동연	박재분	김익균	김종규
김민준	사공린	김봉진	이희로	신진영
정영철	나승용	강봉호	권동근	강태우
신동혁	신현수	장영환	김순자	이성범
마한솔	양혜진	이동하	이원석	박수현
김종울	이동학	이희동	김후자	권정화
장원철	허예정	박찬용	이무영	박영민
강지연	신애주	김진숙	이세정	박대희
김경희	마승화	양봉물	최금부	이종유
김영원	구제욱	이호형	전숙희	김표진
이진경	박종환	김정미	김소영	구숙자
권민성	박경훈	임종완	신창희	정 돈
정효교	김명수	마재승	최영은	정승우
박동근	김일곤	구제철	이장희	이병노
김태연	박준후	이창식	김정욱	박세민
이유청	권나경	박수정	김보영	신나현
정국영	권영란	김민철	최남구	박병기
권팔수	박준용	신승일	김사랑	이문희
이혜경	현승수	박재관	서길수	이동택
이정희	장건용	박도현	임수빈	강학철
정시영	정정교	김태우	최남익	주복귀
최형임	박성주	황광덕	김재형	이강희
김상조	현예진	최영숙	이나영	이보민
김경화	이유홍	장경혜	김우성	임승우

신명재	정영미	박신자	김성우	권민서
한현식	주창관	김창혁	민외금	김병희
이재일	김지열	이재훈	문상옥	이학승
최성욱	이정원	조연정	이춘자	박경원
권창욱	강대범	박경영	김옥숙	유성종
김상석	한혁식	이현우	김진혁	황준원
김건호	손정열	손점순	최종철	박경량
이학준	신재기	이호섭	이유모	김도영
권창모	김대중	유영욱	정지현	최광선
정민우	정용임	김소영	황지영	강현성
이상식	이경미	문 희	기우식	신성호
조연행	정두경	배해동	강우수	신격기
박진우	정충홍	최재현	이선희	조동선
김상한	김원형	서경아	이강복	강우미
최용원	박정흠	전숙환	신세호	이선희
이민아	박분남	강석호	박인정	정재훈
김상수	권혁일	권영철	김익균	김민지
김입분	강경근	노태경	이진주	최해리
정유경	장재혁	이상조	조성민	이민정
함지훈	강성호	신종백	최금부	정 현
신세호	양봉훈	조한숙	이영호	김태영
김창희	서진호	이승재	이진현	이장형
권현구	임익성	이상석	조경민	이진아
문수명	김중환	신종택	김성훈	이영석
신성호	양혜영	권세호	권주영	김우영
김민희	서명진	이호재	이승엽	정화목
하경순	장희찬	이영우	권보형	이재훈
이종석	신범해	김영란	강석윤	장일선
김임태	양지영	권치호	이주항	이동혁
이상태	김태훈	이현주	박진우	박진우
박종연	장재봉	이정순	권재현	이민주
이현국	신지인	신혜정	백혜영	박준만
이지송	남창영	김우균	이재홍	김기수
백미자	김준일	이건민	박수진	권윤경
이하늘	이효원	허태욱	이재원	사공지웅
사공지현	누엔더빗	백대행심	최서원성	이보란화
권연실화	자운스님			

신중탕화 봉안

◎ 공양미(20kg)
 김주현 1포 김우영 1포
 김영홍 1포

◎ 떡공양
 이태화 3만원 이세정 팔시루떡 1말
 박범국 팔시루떡 3되 신재기 5만원

◎ 과일공양
 권혁일 3만원

신장재일 떡공양
 정영미 2되 부창떡집 팔시루떡

백고좌 초재 과일공양
 백해영 5만원

범종불사 동참하신 분
 정광춘 현동렬 전동준 현금주 현혜민
 이경란 김단비 김다솔 서재길

새롭게 영가등 다신 분
 김광렬 복위 업무후인 안동 김공 해석 영가
 배희영 복위 업무후인 성주 배공 종호 영가

새롭게 산신인등 모신 분
 529 김정숙

법왕소식
 ◎ BTN 불교TV 생방송 지금N' 6월 23일 낮12시 30분 백고좌법회 방송
 ◎ 2013년 6월 23일 만불전 104위 신중탕화 봉안식거행

법왕 알림
 ◎ 상인-범물간 앞산 터널로 개통
 ◎ 전국 최장 4.3km! 왕복 6차선! 8분 통과!
 ◎ 상인-범물 1,400원, 상인-파동 800원, 파동-범물 500원
 ◎ 청송콩으로 만든 매주 된장 간장 판매합니다

법왕사 계좌번호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 전야 산사음악회

법왕사에서는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7월 27일 전야(26일) 오후 7시에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보현 스님	정무시	김태근	정민경	박준용	사회 신금산

일 시 | 불기 2557년(2013년) 7월 26일(금) 오후 7시
 장 소 | 법왕사 종합복지관 3층 만불전
 출 연 | 보현 비구니 스님(대찬인생 출연), 정민경(넌센스2 출연중)
 정무시(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 박준용, 김태근(불자가수)
 사 회 | 신금산(전 푸른방송 아나운서)

해오름 소식

봉사활동 하신 분

6월 1일 씨니 봉사단



대학생 15명과 초중생 15명으로 구성된 씨니 봉사단! 귀여운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예쁜 손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한 프로그램으로 모처럼 다양하고 활기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9일 녹색봉사단



늘 푸르름으로 눈과 마음이 환해지는 녹색봉사단에서 이달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6월 16일 작은행복봉사단



점점 늘어나는 작은행복 식구들! 덕분에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케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니 주위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참사랑봉사단



개인 봉사자

최현지	김지호	이원준	박진용	김민지	김진하
김보현	소성현	이경지	서수인	장희수	최용호
천아름	오수민	김도연	엄수진	장려안	도민석
최성빈	최근영	이건형	김다송	윤은민	유선경
도민복	이상호	정영현	최제진		



해오름 게시판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5월)

◎ 수입내용

박정욱 1만원	최학영 10만원	이호동 5천원
강소남 5천원	우포정사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최경순 1만원	김유진 1만원	성외련 2만원
유명옥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기덕 2만원
정활수 3만원	황미선 2만원	임상덕 1만원
이임숙 2만원	김임태 5천원	박순영 5천원
정시영 1만원	임익균 1만원	권보령 2만원
곽순복 2만원	홍새미 1만원	김진성 1만원
조규인 1만원	심종순 5천원	사공관 1만원
한규매 5천원	이점례 5천원	정연이 5천원
이상자 5천원	이인순 5천원	채옥연 5천원
김봉숙 5천원	배수현 2만원	오난옥 5천원
신돈식 1만원	이병희 1만원	여택동 5천원
김순란 3만원	이종희 5천원	신구자 5천원
안경순 1만원	조영석 1만원	조용수 4만원
박학순 1만원	장인숙 5천원	김정희 1만원
권오성 1만원	윤순희 1만원	강태출 5천원
김미옥 2만원	박태숙 5천원	김수라 1만원
박창욱 5천원	최분규 1만원	이현우 1만원
양니영 5천원	문정애 2만원	정광춘 5만원
류운만 1만원	여축동 1만원	노귀자 5천원
신혜경 5천원	이정옥 1만원	안명희 1만원
정무시 1만원	현인숙 1만원	김정임 1만원
노수정 1만원	권숙자 1만원	권계화 1만원
현영희 1만원	장우성 1만원	강영도 2만원
김정순 3만원	이정훈 1만원	김민주 1만원
심규암 5천원	최복례 1만원	김정자 5천원
권봉자 3만원	구정대 2만원	오금옥 1만원
김순태 1만원	박대희 5천원	안상준 2만원
이남희 1만원	이강복 3만원	이은희 5천원
황정희 5천원	무기명 13만8천390원	

합계 1,293,390원

◎ 지출내용

- 기저귀 구입	237,000원
- 소방용품 구입	93,500원
- CMS자동이체 수수료	91,795원
- 카네이션 구입	102,000원
- 부식구입	659,800원
- 의료비 지출	66,2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1,000원
- 경관영양식 구입	80,000원

5월 총 사용내역 1,331,295원

잔액 429,729원 (2013년 5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이일연 어르신 보호자 : 만두 5팩

씨니봉사단 : 카스테라 18개

신돈식

: 바나나 1손, 커피믹스 100개, 아이스크림 2통

바나나 9손, 요플레 82개, 토마토주스 1box, 두유 1box

김덕순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70개, 요구르트 50개, 호박떡 1box, 기지떡 2box

정대영 : 커피믹스 280개

이분연 어르신 보호자 : 현금 60,000원

녹색환경봉사단 : 요플레 50개

윤말줄 어르신 보호자 : 두유 1box

남분한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0개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남분한, 지영달, 권민자, 이일연 어르신

신규 입사자 : 권영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모집

해오름요양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진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기부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
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2013년 1월 1일
음식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

가정용 -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소멸방식



- 세계최초 배기호스 NO
- 침출수 NO
- 약취, 세균 NO
- 필터교체 NO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스포츠서울 선정 2011년 기술혁신부문 브랜드대상 수상
- 친환경 녹색기업, 환경부 녹색인증 대상업체
- 설치가 필요없고 사용이 편리하며, 24시간 내 대부분 분해 소멸됨
- 2개월에 한번 비료로 사용
- 월 전기료 3,000원 미만

*** 수익금 법왕사 해오름 요양원 후원 ***

상담문의
㈜미렌바이오 대구중구총판 장성용 010-6527-6977
총판 / 대리점 / 영업사원 모집 / 주부환영

홍순영 선생 초청,
'생활역학과 풍수' 특별강좌

법왕사에서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풍수 및 역학 전문가 홍순영 선생을 강사로 초빙, '생활역학과 풍수' 특별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전통적인 음택과 양기 풍수 이론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풍수, 생활풍수는 물론, 시주, 명리, 작명 등 실용적인 풍수와 역학의 이론과 적용법을 강의합니다.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 장 소 : 법왕사 복지관 강의실
- 문 의 : 766-3747, 9088

강사 **홍순영** 선생



- 약력 : 대한풍수학회 회장
한국역학인총회 고문
동양문화연구원 원장
- 저서 : 「나도 풍수가 될 수 있다」
「명리특강 1, 2, 3」
- 논문 : 「수리길흉론」
「나경 사용법」

청정 지역 청송에서
100% 순 우리 콩으로 빛은 간장·된장
재래식 전통 비법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청정지역 청송에서 재배한 순 우리 콩으로 빛은 메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왕사 메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송에서 재배하고 가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한 최고의 친환경 식품입니다.



간장 2만원
된장 3만원

구입문의 053-766-3747, 9088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